

하나님에 따른 목양의 유기적인 실행

메시지 2

유기적인 목양의 선결 조건

(2)

충분하고 철저하게 기도함

성경: 마 18:18-20, 겔 33:7, 계 1:13, 요일 5:16, 계 8:3, 출 28:29-30, 엡 6:18-19

- I. " ...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 II.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는 항상 유기적인 목양을 가져온다**—겔 33:7, 34:23, 계 1:13, 히 7:25, 마 18:18-20, 요일 5:16.
- A.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은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과수꾼을 보내시고 나서 그분 자신이 목자로서 나타나신다.
 - B.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계1:13.
 - 1.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봉사를 위해서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다—출 28:4.
 - 2. 제사장의 의복은 경찰관이 입는 제복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
 - C.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그리스도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창 14:18-20, 히 7:25.
 - D. 활력 그룹의 기도는 죄 중에 있는 형제를 회복하며 얻는다—마18:18-20.
 - E. 그리스도와 한 영 안에서 죄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요일 5:16.
- III.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는 구약에 있는 성막의 그림과 제사장의 봉사로 예표될 수 있다**—출 33:1-5, 28:15, 17, 29-30, 민 4:3.
- A.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으로 예표됨—출38:1-8, 33:1-5.
 - 1. 번제단은 기도를 상징하며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민 6:1-4, 롬 12:1.
 - 2. 물두멍은 철저한 자백의 기도를 상징한다—요일 1:9.
 - 3. 분향단은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도를 상징한다—출 30:1-5, 계 8:3.
 - a.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중앙 행정부, 우리의 하늘에 속한 수도이다. 분향단은 하늘에 속한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다.
 - b.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신성한 행정의 집행의 중심이다—계 8:3.
 - B. 제사장이 섬길 때 입는 의복의 일부인 흉패로 예표됨—출 28:15,17, 29-30.
 - 1. 대제사장들은 금과 보석들로 채워진 흉패를 가슴에 띠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출 28:9-10, 15, 17, 20-21.
 - 2. 우림과 둠뭉이 흉패에 더해질 때 흉패는 우림과 둠뭉에 의해 판결의 흉패가 된다—출 28:29, 30, 민 27:21.
 - 3. 제사장의 봉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전쟁이다—민 4:3.
- IV.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A.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이다.

B.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싸우며, 기도를 지키기 위해, 기도가 아닌 기도를 멈추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끊으려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고: 활력 그룹 메시지 1,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118,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7,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32,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147, 제사장 직분 메시지 18,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교회의 기도 사역 메시지5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글

활력 그룹의 기도는 묶고 푸는 기도이다

우리는 17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연결을 보아야 한다. 17절에서의,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죄인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너무 낮다. 그러나 18절은 우리가 우리의 묶고 푸는 기도에 의해 하늘을 만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활력 그룹의 기도이다.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지는 조화 가운데 있는 두세 사람의 활력 그룹의 실행이다. 이들은 16절에 언급된 두세 사람이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 이들은 활력 그룹의 구성원들이다.

만일 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우리는 먼저 사랑 안에서 그를 다루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룰 수 없으면 우리는 그를 접촉하기 위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 여전히 다룰 수 없다면 그것을 교회에 말하고, 만일 교회도 다룰 수 없다면 그 죄 있는 형제는 교회의 교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묶고 푸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고 조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활력 그룹의 실제이다. 이렇나 두세 사람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이름 안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 것이다. (활력 그룹 9-10쪽)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는 항상 유기적인 목양을 가져온다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

13절은 또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말한다. 당신은 가슴에 띠를 두른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었다(출 28:4). 다니엘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 역시 정금으로 허리에 띠를 둘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를 띠었다'.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일하기 위해 강화되는 것이고, 반면에 '가슴에 띠를 두르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돌봄을 상징한다. 교회들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완수되었다. 지금 그분은 더 이상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 필요치 않다. 지금 그분이 교회들 한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금띠'는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현재 교회들을 신성한 돌봄으로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들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분의 신성한 힘으로 그들을 돌보신다. 오늘날 그분은 얼마나 사랑스런 돌봄으로 그분의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15쪽)

제사장의 의복은 경찰관이 입는 제복에 비유될 수 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 제사장의 의복은 경찰관이 입는 제복에 비유될 수 있다. 경찰관의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경찰관임을 안다. 경찰관의 제복은 그의 표현이다.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입는 법복도 마찬가지이다. 경찰관의 제복과 재판관의 옷은 옷이 표현을 뜻한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신약에 의하면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표현을 상징한다. 제사장의 의복의 모든 방면은 그리스도의 속성이나 미덕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의복은 섬기는 자들이 지닌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제사장의 표현인 제사장의 의복은 그들의 자격이었다. 만일 제사장들이 다른 종류의 의복을 입는다면 제사장들로서 섬길 자격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경찰관의 제복을 예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근무 중일 때 합당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것은 제복이다. 만일 경찰관이 어떤 다른 옷을 입는다면 매우 멋있고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격이 없을 것이다. 자격이 있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을 입어야 한다. 동일한 원칙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은 우리에게 제사장들로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리가 제사장들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로서 섬길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는가? 우리에게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결정된다. 이 표현이 우리의 자격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8, 114-115쪽)

대제사장으로서는 섬기시는 그리스도는 중보기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멜기세덱이 자고 있었다고 믿는가? 당신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깨어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급히 왔다고 믿는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이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러한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승리가 있는 후에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잘되어 가고 있느냐? 나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게 별고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피곤하지? 나는 너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왔단다."

만일 당신이 히브리서 7장을 다시 읽는다면 당신은 대제사장으로서는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재하는 분이심을 볼 것이다. 당신이 낮에 싸우고 있는 동안 곧 소극적인 것들을 도살하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다. 이것은 7장 25절에 분명히 언급되었다. 저물 때에, 당신이 싸움을 끝내고 그가 그의 중재의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당신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에게 오신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승리자는 싸우고 있었으며 멜기세덱은 살피고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았으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때를 알았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일 앞쪽을 본다면 자동적으로 뒤쪽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내 얼굴을 본다면 내 뒷머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공급하는 멜기세덱은 또한 중재의 기도를 하는 대제사장임에 틀림없다. 이런 종류의 대제사장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2, 339쪽)

우리가 죄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첫 번째 술어 동사인 '구하라'의 주어는 '그'이듯이 '생명을 주리라'의 주어도 여전히 '그'이다. 이것은 구하는 자가 죄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구하는 자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과 한 영 안에서(고전 6:17)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 죄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해야 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행하고 살고 처신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기도는 치료를 위한 기도이며 여기의 기도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16절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면 주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한 영 안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 죄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생명의 분배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

의심할 바 없이 16절에 있는 '생명'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죄 범한 형제에게 분배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맥에 의하면 이 영적인 생명은 또한 그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서 그의 육신의 몸을 구출할 것이다(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라).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7, 358-359쪽)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는 구약에 있는 성막의 그림과 제사장의 봉사로 예표될 수 있다

분향단은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도를 상징한다

성막과 바깥뜰의 그림에 따르면, 법제가 초점이다. 그러나 사실상 실지적인 중심은 분향단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재의 생활이 신성한 실행, 즉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실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하는 데 여러 가지 용어들—경륜, 행정, 실행, 분배, 움직임, 통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은 동의어, 즉 같은 뜻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실행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분배하시고, 행정하시는 분이다. 이 성막의 그림은 이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는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그림이다.

분향단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아니나, 분명 하늘의 정치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정치학', 즉 하나님의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지성소 안의 법제는 정부의 중심, 하늘에 속한 수도이다. 분향단은 하늘에 속한 백악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세워지고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하나님의 백악관이다. 그리스도의 중재하는 생활, 즉 그분의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행정의 책, 신성한 집행의 책이다. 이 책은 우주 전역에 걸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행정을 계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의 중심은 보좌가 아니라 계시록 8장에 있는 분향단이다. 계시록 8장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이 단 위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러지고, 그리스도의 향은 이 기도들과 합해진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의 정책들을 집행하신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7, 141-142쪽)

대제사장들은 금과 보석들로 채워진 흉패를 가슴에 띠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대제사장은 금과 보석의 건축인 흉패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제사장에게는 두 견대와 흉패가 있다. 두 견대 위에는 두 무리로 나뉘어진 열 두 이름들이 있다. 여섯 이름이 있는 한 무리는 한쪽 면 위에 있고 또 다른 여섯 이름의 무리는 다른 쪽 면에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열두 이름이 여섯 쌍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흉패 위에는 보석들 네 줄이 있고 각 줄은 세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의 옷 위에 있다. 대제사장이 성막 뜰의 모든 장소와 성소를 지나 속죄소 앞에 서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 위에는 그러한 건축이 있다. (제사장 직분 202쪽)

우림과 둠뭇이 흥패에 더해질 때 흥패는 우림과 둠뭇에 의해 판결의 흥패가 된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은, "너는 우림과 둠뭇을 판결 흥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고 말한다. 데이빗 베런(David Baron)의 저서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유대인(The Ancient Scriptures and the Modern Jew)'에는 우림과 둠뭇에 관한 글을 담고 있는 부록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흥패 위에 있는 열 두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물 두 자 가운데 열 여덟 자를 포함하였다. 나머지 네 자는 둠뭇이라 부르는 부분품에 부착되었다. 히브리어 단어 둠뭇은 '완전케 하는 자들', 또는 '온전케 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둠뭇이라 부르는 추가적인 부분품을 지닌 흥패 위에서 모두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볼 수 있다. 타자기 키 위에 있는 스물 여섯 자의 영어 알파벳이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나 단락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듯이 흥패와 둠뭇 위에 있는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판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글에 의하면 우림은 열 두 보석 아래 있는 흥패 안으로 삽입된 조명기였다.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을 뜻한다. 데이빗 베런의 책에 있는 글은 우림이 연소를 위한 기름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과 이 기름을 태우는 데 사용된 불이 제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을 쓴 권위 있는 그 히브리 학자는 또한 흥패 위에 있는 각 보석 조각을 비추기 위하여 각 보석마다 하나씩, 열 두 개의 조명기들이 있었음을 말했다. 그럴 때 투명한 보석들은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80-181쪽)

제사장의 봉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행동할 때마다 전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수기 4장 3절은,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제사장의 봉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복음 전과는 일종의 싸움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일종의 싸움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바로 항상 싸우는 생활이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죄들과 사탄과 어둠과 그 많은 악한 것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싸우는 생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전쟁이다. 제사장의 사역은 싸움의 문제이다. (제사장 직분 211쪽)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며'이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맥을 살펴보면 기도와 간구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도의 뜻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깨어 있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 있는 것은 곧 졸지 않는 것이요, 눈을 떠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감시하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은 어떤 위험이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도와 간구에 깨어 있는 것은 곧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탄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탄의 목적과 역사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83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장(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한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중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이 기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 중의 기도를 보호해야 하며, 기도 안에 기도를 방비하고, 우리 기도를 중단시키는 사탄의 계획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일종의 봉사요, 뛰어난 봉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려는 기회를 갖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교회의 기도 사역 83, 95-96쪽)

